

타운뉴스칼럼

카미유 클로델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6월의 첫날 아침, Getty Center를 찾았다. 입구에 도착하니 9시 25분이었다. 경비원이 30분에 주차장 입장을 허락한다며 진입로 오른쪽에 차를 대고 기다리라고 했다. 내 앞에 한 대가 있었으니까 내가 두 번째 방문객인 셈이다. 9시 30분이 되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트램을 타고 이동했다.

10시 정각에 입장했다. 자원봉사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안내를 해주었다. 카미유 클로델의 전시장이 어디인가 물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다. 이곳에서 나가서 오른쪽 건물 2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고 원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좋다고 했다.

시대를 너무 앞질러 태어난 비운의 여성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두 번이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카미유의 조각에 대한 자질을 일찍이 알아챈 부친은 그녀가 조소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녀는 영향력 있는 조각가의 문하생으로 입문했다. 얼마 후 그녀의 스승은 오키스트 로맹에게 카미유의 지도를 부탁했다. 이때 카미유의 나이는 19세, 로맹의 나이는 43세였다. 이미 20년간 동거중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있었던 로맹은 19살의 카미유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1887년 카미유는 로맹의 조수로 일하면서 로맹의 작품 <갈레의 시민>, <지옥의 문>, <입맞춤> 등의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카미유는 '뇌부르그의 광란', '이교도의 농지', '사쿠타라' 등의 자기 작품을 발표했고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888년 카미유는 살롱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카미유의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자 로맹은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혹은 연인 사이라기보다 경쟁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1892년 카미유는 로맹과 헤어져 로맹의 작업실을 나왔다.

1906년 카미유는 자신의 작품을 보이는 족족 부숴 버렸고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13년 3월 동생 폴은 카미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다음해 그녀는 프랑스 남부의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이 후 약 30년간 바깥출입을 금지당하는 등 유폐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1943년 10월 19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혼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작품들을 한 점 한 점 감상하면서 그녀의 삶의 편린과 고통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되어 비통하고 참담한 기분에 빠져 들었다.

전시장에는 카미유가 남긴 90여 점의 작품 가운데 6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했으나 그녀의 사진과 설명, 그리고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발과 다리 등의 작품들까지 합치면 100여 점은 족히 된다고 느껴졌다. 한 바퀴 돌고나니 마음과 몸이 기진맥진하여 도저히 걸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전시장을 나와 소파에 앉아 쉬었다.

앉아서도 머릿속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여성 예술가의 삶이 고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탁월한 능력으로 평가 받기보다는 로맹의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카미유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남성 위주의 불합리한 사회에서 그녀가 바른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비참한 삶의 여정이 내게 옮겨진 탓인지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침잠된 기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운명이 추시고 아팠다. 도저히 앉아 있기 힘들어 저녁도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와 다르게 다음날 아침에도 늦잠을 잤고, 기상해서도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다.

게티 센터에서 사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 사진과 해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조명한 커다란 사진집이다. 그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애절한 삶에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죽은 후에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무연고 시신들과 함께 공동 매장되었고,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애통하기 짝이 없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지났다. 항불을 켜 놓고 앉아 잠시 그녀를 위한 묵도의 시간을 가졌다.

19세기 프랑스의 엄격한 사회적 관습을 타파한 한 여성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그녀가 예술계에 펼친 혁신과 독창성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험난한 삶의 여정을 치열하게 살다 간 카미유 클로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28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3
커뮤니티 소식	15,17
세상에 이런 일이	19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법률	21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5
전문인 칼럼	26,27,40
숨은그림 찾기/답, 낱말 퀴즈/답	28/50,28/54
건강	37,40,41
깔깔	38
부동산/경제	39
자동차	43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2,64,66
사진여행	45
요리	47
연예	51,53
종교	50
안내광고	54,55
Domestic	56
여성	59,61

## 기주장의식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 타운뉴스® 배포지역

- 부에나팍, 플러튼, 세리토스, 아테시아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가든그로브, 어바인 등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http://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http://www.timkimdental.com) **터스틴**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b>일반 · 미용치과 전문</b>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b>교정치과 전문</b>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b>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b>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	--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 김건중 종합치과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ODS, KADA 회원